

# 미제는 남조선괴뢰《대통령》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실제적인 통치자

장 경 일

오늘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되었으며 특히 정치에서 자주란 전혀 찾아볼수 없는 식민지예속국으로 전락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이 통치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명색뿐이고 실제적인 통치자는 미국입니다.》(《김일성전집》 제94권 64페이지)

남조선의 정치적예속성은 괴뢰정부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철저한 지배와 조종을 받는데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의 력대 괴뢰 《대통령》들을 선발육성하고 《대통령》감투를 씌워준 지배자이며 그를 조종하는 실제적인 식민지통치자라는것을 밝히려고 한다.

그 근거는 첫째로, 남조선의 력대 괴뢰 《대통령》들이 미국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길들여지고 선발된 식민지줄개들이라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배정치를 실현하는데서 남조선력대 괴뢰《대통령》들을 철저한 친미분자들로 선발육성하여 내세웠다.

괴뢰정부의 초대《대통령》이라고 하는 리승만역도로 말하면 8살때부터 미국선교사들이 저들의 주구로 점찍어두었고 19살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학당을 나왔으며 그후 워싱턴대학, 하바드대학, 프린스턴대학을 거쳐 《박사》감투까지 씌워주면서 철저한 친미분자로, 반공광신자로 체계적으로 길들여왔다.

리승만역도를 선발한 기본인물인 맥아

더는 당시 프린스턴대학에 재학중이던 리승만역도의 뿌리깊은 친미사대적립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 미국동군사령관으로서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작성에 직접 관여한 맥아더는 이 시기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반공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던 리승만역도를 미국의 식민지대리인으로 내세울것을 결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에 대한 반공정책을 수립하는데서 맥아더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던 미전략사무국(미중앙정보국의 전신, 략칭《OSS》) 책임자 던빌 도노반 소장, 부책임자 프레스턴 존필로도 리승만역도의 친미사대적이며 반공적인 립장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OSS》는 역도를 조선의 《지도자》로 선전하는 모략을 꾸미었다.

미제는 1945년 10월 25일 남조선에 아무런 정치적지지기반도 없는 리승만역도를 저들이 조작한 반동적인 정당, 단체들의 연합체인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총재》자리에 올려앉히였고 1946년 2월 14일에는 《군정고문회의》대신에 새로 조작한 미《군정》의 자문기구인 남조선《민주의원》을 조작하고 그 《의장》자리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은 미제가 리승만역도를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말아할 식민지대리인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1946년 12월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리승만역도를 미국에 불러들여 우선 남조선에 반공적인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을 퍼뜨리고 일을 진척시키라는 지시를 주었다. 1948년 7월 20일 미제는 망국적인 《5.10단독선거》를 강행시키고 폭력과 협잡의 방법으로 조작된 괴뢰《국회》

에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리승만역도에 《대통령》감투를 씌워주었다.

력사에 《유신》독재자로 악명떨친 박정희역도도 미국에 의해 길들여지고 선발된 식민지대리인이었다.

미제는 이미 일제패망직후 박정희역도를 장차 저들의 식민지주구로 요긴하게 써먹을수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중국 천진근방의 탕구항에서 인천으로 데려왔다. 그후 미제는 박정희역도를 저들이 조직한 피뢰록군사관학교에 2기생으로 들여보내어 미국식군사훈련을 주면서 친미주구로 길러냈다.

1948년 러수군인폭동때 박정희역도는 수많은 애국적군인들을 밀고하여 미국의 큰 《신임》을 받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룽군포병학교에서 친미주구로 더욱 철저히 길들여졌다.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역도는 전쟁시기에 피뢰록군본부 정보군 전투정보과장, 1955년에는 피뢰 제5사단장, 1959년에는 제6관구사령관, 1960년 1월에는 부산군수기지사령관을 거쳐 피뢰록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벼락출세하면서 군부출신의 식민지대리인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다.

미제는 리승만피뢰정권이 파산되자 박정희역도가 쿠데타를 통하여 군권을 틀어쥐고 총칼에 의거하여 정권을 장악할수 있도록 역도를 피뢰군 제2군 부사령관으로 올려앉히었다.

리승만피뢰정권이 더는 지탱할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빠진 1950년대말에 미국은 국회상원의교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한 《콜론보고》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정당정치가 실패할 경우에 군인정치에 의한 교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으며 당시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1961년 《〈한국〉정치를 계승할 사람은 전쟁의 마당에서 자라난 새로운 젊은 군인들》이라고 한 일본주재 미국대사 라이샤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박정희역도로 하여금 쿠데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두환, 로태우역도들도 역시 미제에 의하여 박정희역도를 대신할 군부출신의 식민지대리인으로 체계적으로 길들여진자들이었다.

미제의 조종에 의하여 전두환, 로태우역도들도 피뢰록군사관학교에서 미국식군사교육을 받았고 1959년 6월부터 5개월동안 포트 브레이크까지의 미록군특수전학교에서 심리전교육을 받았으며 1960년 7월부터는 미록군보병학교에서 5개월동안의 잔인한 특수훈련과정까지 거치였다. 이 과정에 역도들은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무조건적인 복종정신을 체질화하게 되었다.

미제는 저들이 길들인 전두환역도와 로태우역도를 월남전쟁터에 내몰아 식민지주구로서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검토한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대리인으로 선발하였다. 1980년대에 미국은 저들이 키워낸 이 친미주구들을 피뢰《대통령》자리에 올려앉히고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군부독재자들의 뒤를 이어 피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김영삼역도도 미제에 의하여 식민지대리인으로 오래동안 체계적으로 길들여진 주구였다.

남조선강점이후 저들의 줄개인 장택상을 통하여 김영삼역도를 선발한 미제는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에 역도를 받아들이고 27살에 벌써 피뢰국회의원으로 내세웠다. 전후 《자유당》이 인민들로부터 배격을 받고 야당세력의 공세로 수세에 빠지게 되자 미제는 김영삼역도를 야당인 《민주당》에 잠입시켰으며 1968년 8월에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대회에 방청으로 참가시키면서 친미적인 《수업》을 주었다. 미제는 김영삼역도에게 미국의 《명예문학박사》칭호까지 주고 목숨이 위협할 때마다 직접 나서서 막아주었다. 미국의 《보호》속에

서 김영삼역도는 수십년동안 《야당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감옥살이를 한적이 없었다.

1980년대말 로태우군사파쏘독재정권이 극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제는 《야당정치인》의 가면을 쓴 김영삼역도를 다시 여당에 끌어들이고 로태우역도와 손잡게 하였으며 1993년 2월에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이처럼 남조선의 력대 괴뢰《대통령》은 인민들의 그 어떤 지지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민지통치자인 미제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선발된 식민지주구에 불과하였다.

근거는 둘째로, 남조선의 력대 괴뢰《대통령》들이 미국의 사전승인과 선거지원, 조종에 의하여 《대통령》감투를 쓴데서 찾아볼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되자면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면 《미국의 리익》의 견지에서 《가치》를 검토받아야 했고 《대통령인준》을 받아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1987년에 쓴 어느 한 글에서 남조선에서 《미국이 정권을 맡기고 싶어하는자는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인물이며 그렇게 할듯싶다 생각되면 미국은 전면적으로 그 인물을 뒤받침한다.》고 실토하였다.

1987년 9월에 당시 남조선괴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로태우역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대통령 레간부부와 국무장관 술쯔부부에게 뽕물상자까지 섬기고 《대통령》만 시켜준다면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것을 맹세하였다.

그후에도 《대통령》자리를 넘겨다보는 자들은 너나 없이 먼저 미국으로 갔다.

2007년 2월에 괴뢰《대통령》선거를 앞두

고 《한나라당》의 박근혜와 리명박역도가 경쟁적으로 미국에 건너가 미행정부와 국회의 고위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각기 아첨에 열을 올린것도 그 목적은 《대통령인준》을 받자는데 있었다.

미제는 괴뢰《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은폐된 교활한 수법으로 저들이 내세운 괴뢰《대통령》후보들의 《당선》을 지원해주고 조종하였다. 저들의 식민지대리인을 괴뢰《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미국의 수법은 로골적인 방법으로부터 은폐된 방법으로, 직접적인 개입으로부터 간접적인 조종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음흉해지고있다.

실례로 1987년 괴뢰《대통령》《당선》을 위한 로태우역도의 기만적인 6.29 《특별선언》발표, 김대중과 김영삼의 《후보단일화》의 파탄도 결국에 있어서 미국의 조종에 의한것이였다. 1987년 6월 23일 서울에 나타난 미국무성 차관보 시거는 로태우역도에게 남조선의 정세가 지난 시기와 다르기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민주화공약》을 하도록 지시를 주었고 6월 28일 새벽에 소집된 미국회상원 본회의에서도 남조선에서의 《민주화조치를 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였다.

로태우역도는 미국상전의 각본대로 6.29 《특별선언》을 발표하는 기만극을 연출하고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며 《민주화》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럴듯 한 거짓말을 꾸며냈다.

한편 미제는 로태우역도의 경쟁대상으로 될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각기 《대통령선거》에 나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 8월 11일 미국대사 릴리를 김대중에게 보내어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지할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도록 부추기였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 언론을 동원하여 김대중이 나서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것과 그가 당선되

여도 군부의 반발이 있을수 없다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도록 하였다.

김영삼역도를 궤퇴《대통령》으로 내세우기 위해 미제는 역도에게 《문민》의 보자기를 씌우고 《대통령당선》을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조종하였다.

1992년 6월 미국대통령이었던 부쉬1세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그레그를 통하여 궤퇴안전기획부에 《선거》문제와 관련한 사회적혼란을 수습하라는것과 김영삼역도의 《당선》에 적극 협력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리명박역도를 궤퇴《대통령》으로 올려앉힌것도 미국이 음흉한 방법으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을 집결시켜 《대통령당선》을 지원해주고 조종하였기때문이였다.

초기에 미국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내세워 남조선에서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미국정부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리명박역도의 《대통령당선》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듯이 꾸며댔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은 미중앙정보국소속의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같은 극우익보수단체들을 대량적으로 조작하도록 하고 그것들이 《한나라당》과의 보수연합을 이루게 하여 진보개혁세력에 비한 친미보수세력의 역량상우위를 보장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은 《뉴라이트교육단체》, 《북인권시민연합》, 《북민주화네트워크》 등 반통단체들을 련이어 만들고 그 연합체로서 2005년 11월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을 조작하였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미군사령관을 비롯하여 현지지배기구의 고위관계자들은 《남조선미국우호협회》, 《재향군인회》, 《성우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주요 친미

보수단체들을 자주 찾아가 《정권교체》주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남조선미국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추기였다.

미제는 리명박역도의 《당선》을 위해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남조선에 있는 첩보망, 공작망, 연락선, 인맥을 총동원하여 선거개입공작을 벌리였다.

한편 미제는 미국언론들과 브르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미국정책연구기관들을 통하여 《선거》에서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이 당선되면 남조선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어색해질것》이라는 여론을 내돌려 리명박역도와 같은 친미보수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선거라는것이 《민주주의》의 보자기로 미국의 정치적지배와 간섭을 가리우는 위장물, 미국의 지원과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근거는 셋째로, 남조선의 역대 궤퇴《대통령》들이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수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해온것을 통하여 뚜렷이 알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최고대표자는 마땅히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의 견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이 원칙으로, 대의명분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궤퇴《대통령》에 의한 《정책수립》과 《집행》은 미국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종되고 처리되여왔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역대 남조선 궤퇴《대통령》들이 할수 있는 선택이란 오직 모든것을 미국에 유리하게, 미국에 리익이 되게 집행하는것이였고 이것만이 식민지에속국가의 《대통령》자리를 지킬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

이로부터 남조선괴뢰《대통령》들은 미국을 위해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매국정책을 일삼아왔다.

괴뢰정부의 초대《대통령》이라고 하는 리승만역도는 옷은 두루마기를 입었어도 마음만은 미국어른들을 따라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민족의 운명을 전쟁의 참화속에 서슴없이 던져버리었다.

조선전쟁도발을 몇달 앞둔 1950년 2월 중순 미국은 리승만역도를 도끼에 불러들여 남조선괴뢰군이 북침전쟁을 먼저 도발하며 그를 맥아더의 지휘하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한 《11개조훈령》을 주었다.

이에 따라서 매국역적 리승만역도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을 집행하는 손발이 되어 1950년 6월 25일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유신》독재자 박정희역도는 1964년 3월에 웰남전쟁터에서 막다른 궁지에 빠진 미제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통하여 괴뢰군과병을 지시하자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웰남전쟁터에 괴뢰군을 파병하는 매국정책을 실천에 옮기었다.

1980년대에 《유신》독재자의 뒤를 이은 전두환역도는 《두개조선》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남북직접협상론》이라는것을 제창하면서 동서도이첼란드방식에 의한 《두개조선》조작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려고 미쳐날뛰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뒤를 이은 로태우역도 역시 미제의 《두개조선》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하면서 《전대협》(당시)대표와 문익환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는 반통일정책을 일삼았다.

《문민》파쑈독재자인 김영삼역도는 미국의 《쌀시장개방》요구에 순응하여 2005년

부터 아무런 제한없이 미국쌀을 수입하도록 하여 600만 남조선농민들의 명줄을 끊는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였다.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리명박역도 역시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6.15북남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북남관계를 전면파탄시켰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모독하면서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력을 차단시키고 북남관계를 침예한 군사적대결국면으로까지 몰아갔다.《유신》독재자의 딸인 박근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밑에 특대형선거부정행위로 2013년에 괴뢰《대통령》자리를 따낸 이후에는 선거공약을 철회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깡그리 말살하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미국의 식민지괴뢰에 불과한 박근혜는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반통일적매국정책을 일삼았다.

특히 괴뢰군부장패들을 내몰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직접 도이첼란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나라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며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2014년 4월에는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 《강한 조치》를 떠들며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미제의 철저한 식민지주구로서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괴뢰《대통령》들이 미국의 조종에 따라 민족의 생존권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은 죄악들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괴뢰《대통령》이 미국의 조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한다면 곧 미국의 압

---

력이 뒤따르고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자 미국은 겉으로는 이를 지지환영하는척 하면서 김대중을 미국에 호출하여 갖은 협박을 다하였다. 2002년에 남조선에서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조선인들의 통일열기에 의하여 《열린우리당》후보인 로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은 예상치 못한 사실앞에 극도로 당황해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내리먹이려고 갖은 압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로무현의 《특정정당지지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남조선정치사상 처음으로 되는 정치쿠테타까지 일으켰다. 미국의 모략에 의해 로무현은 2004년 3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달동안이나

《대통령》자리에서 밀려나 《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에서 정치적실권을 쥐고있는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미국이며 괴뢰《대통령》은 남조선의 식민지예속성을 감추기 위한 장식품, 식민지대리인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한 남조선에서 그 누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왔는다고 하더라도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서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해 나가야 한다.